

친환경 행동에 관련한 온라인 액티비즘의 매개적 역할 탐구*

지구온난화에 관련한 인지적·정서적 요인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정은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박사과정**

박보형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석사***

한미정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 상황에 대한 인식과 환경죄책감이라는 정서가 온라인 액티비즘의 매개적 역할을 거쳐 탄소저감행동과 같은 친환경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36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탄소저감행동에 유의미한 직접적 연관을 보이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과 제약인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액티비즘은 탄소저감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상에서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의 소통 활동이 탄소저감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액티비즘의 매개적 역할을 분석한 결과, 지구온난화에 관련한 문제인식 및 제약인식과 탄소저감행동 간에 온라인 액티비즘은 부분적 매개를 보이는 반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여도와 정서적 요인인 환경죄책감은 온라인 액티비즘의 매개를 통해서 탄소저감행동으로 연결되는 완전 매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행동을 촉진하고 위해서는 온라인 액티비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은 기업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이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이며 일반 공중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활성화,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분위기 형성 등은 탄소저감행동과 같은 친환경행동으로 연결되는데 핵심적인 동인으로 볼 수 있겠다.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 사업으로 연구됨(HY-2022-1622)

** kimje114@naver.com, 주저자

*** via0012@hanyang.ac.kr, 공동저자

**** mjhan@hanyang.ac.kr, 교신저자

KEY WORDS 지구온난화 • 문제인식 • 제약인식 • 관여도 • 환경죄책감 • 온라인액티비즘 • 탄소저감행동

1. 서론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글로벌 이슈 중 하나는 지구온난화 문제이다. 유엔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전 지구 기후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11도(°C) 올랐다. 이는 2015년 파리기후 협정의 상승 제한 목표인 1.5도(°C)에 불과 0.39도(°C)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2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또한 향후 10년간 인류가 당면할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기후대응 실패(climate action failure)’를 전망하였다(Global Risk Report, 2022). 실제 최근 폭염, 가뭄, 홍수 등 대규모의 자연재해와 함께 식량 부족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이 체감하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긴급성 및 심각성 인식이 높아진 것에 비해 일반 공중의 지구온난화 대응 행동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도 기후변화에 대한 한 인식 조사에 의하면(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1), 우리나라 성인 대다수는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위협이라고 응답했는데(94%)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실질적 대응의 주체는 개인보다 기업과 정부’라는 인식 또한 높은 수준으로(86%)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과 행동적 대응의 괴리 현상은 환경 문제에 대해 문제인식은 있으나,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개인행동 수준에서 책임성의 한계를 느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인류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만 예방 행동에는 불참하는 것이다(박혜영, 2021).

기후변화가 실제로 다양한 천재지변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정책 차원의 규제와 기업의 참여, 그리고 개인의 일상에서도 실천이 필요하다(김영옥 외, 2018). 이를 위해 일반 공중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탄소중립과 같은 개선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친환경행동, 예를 들면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저감행동 등을 촉진하고 제고하기 위해 대응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정서적 반응을 고찰하고, 아울러 온라인 소통이 보편화된 소통환경에서의 온라인 액티비즘(Online Activism)이 요인들과 결합하여 탄소저감행동과 같은 행동적 대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과 아울러 친환경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온라인 액티비즘(Online Activism)'의 역할에 주목했다. 온라인 액티비즘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정치·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원, 캠페인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Lee, Tao & Li, 2022).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통이 보편화되고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영향력이 사회적 담론 형성과정 및 공중의 의제설정에도 있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임연수외, 2021; Brubaker, 2005; Meraz, 2009). 온라인 액티비즘은 지구온난화 대응책 가운데 일반 공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나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공중들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뉴스나 정보를 접하고,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생각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등의 다양한 소통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김미정·장안리, 2022). 또한 온라인상의 적극적 소통은 해시태그 등을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연계해 주는 매개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행동유도 등 촉진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강귀영·윤영민, 2021). 이에 탄소저감행동과 같은 친환경 행동과 관련한 온라인 액티비즘의 영향력 혹은 역할을 확인하였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공중의 인식요인에 관해서서 공중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 of Publics)에서 제시하는 상황인식 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 상황에 대해 공중이 가지는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와 같은 인지적 요인들이 후속적 커뮤니케이션 행동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수의 실증적 검토를 거쳤다 (Grunig, 1997). 이론적 설명력과 아울러 목표공중에 대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는데 실무적 효용성을 인정받고 변인들로 알려져 있다(김정남·박노일·김수진, 2014). 환경을 주제로도 상황이론의 변인들은 꾸준히 활용되어 왔는데, 지구온난화, 수자원 보호,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었다(송해룡·김원제, 2014; 정원준, 2022; 최홍림·최준혁, 2022; Lim, Greenwood & Jiang, 2016; Jiang, 2019).

또 다른 선행요인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 제약인식, 및 관여도와 같은 인지적 요인과 아울러 정서적 요인이 고려됐다. 최근 환경 이슈를 다루는 연구에서 정서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정서가 행동을 유발하는 동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신경아, 2013; 김현정·윤영민, 2020; 이현승·김영욱, 2022; Shin & Han, 2016; Chon & Park, 2020). 특히, ‘죄책감’은 환경 문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정서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혹은 규범에 타당한 친환경 행동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죄책감인 ‘환경 죄책감(Eco-guilty)’이라는 개념이 활용되었다. 환경 죄책감의 원인이나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검증돼 왔으며(김주환·한미정, 2021; 곽연경·전도현, 2021; 김미경·장안리, 2022),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행동과 관련해서 ‘환경 죄책감’을 선행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실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디지털 소통 기술을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고려하여 온라인 액티비즘의 개념에 주목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상황인식과 환경죄책감이 온라인 액티비즘을 거쳐 어떻게 탄소저감행동 변인에 작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적인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대응방안의 모색

최근 폭염, 가뭄,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연합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2023년이 인류가 경험한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6월에서 8월에 이르는 3개월 동안 세계 해수면 온도는 3개월 연속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했고, 남극 해빙 면적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스페인에서는 9월에 47.5도를 기록하며 유럽 기상관측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우리나라도 2023년 여름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수는 2,680명으로 최근 5년 내 최다로 나타나는 등의 폭

염을 경험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18개 기구와 공동 발간한 ‘2023 기후과학 합동 보고서(United In Science)’에 의하면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미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15°C 이상 올라갔고, 앞으로 5년 안에 1.5°C를 일시적으로 초과할 가능성을 66%라고 제시하는 등 마지노선으로 정한 1.5°C가 무너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진단하였다.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된 파리협정(2015년)을 통해 ‘탄소중립(Carbon-Zero)’을 전 지구적 노력의 지향점이자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agenda)로 결정하였다. 탄소중립이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Carbon Neutral)를 흡수 및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고(탄소중립위원회, 2020), ‘화석연료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산’ 등 경제·산업 측면의 정책적 대응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와 같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참여를 이끄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적극적인 대처와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최현주, 2017).

개인행동의 영역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더라도 실제 환경 개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강만옥, 2015).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적 행동의 실천이 불편하고 번거롭거나, 비용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 등과 같이 대부분의 친환경 행동은 불편함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대량 생산돼 유통되는 기성품과 달리 친환경 제품은 단위 생산량이 적어 가격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인 만큼 위험에 대한 개인적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을 낮게 지각한다는 특징이 있다(김영옥 외, 2016). 위험 상황을 극복하는데 제약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개인 차원의 실천이 일어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다. 국내 기후변화 행동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인식과 행동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인식과 행동 변인 간의 연관성과 영향력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돼 왔다(김서용·김선희, 2016; 김영옥 외, 2018; 김수진·김영옥, 2019; 함승경 외, 2020).

먼저, 선행변인인 기후변화 인식에 관한 연구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공중의 반응 주로 위험 인식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상당 부분 논의되어 왔다(임인재·김영옥,

2019). 하지만, 환경문제의 경우 피해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는 지체효과(delay effect)로 인해 사람들이 환경 위협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윤순진, 2009; 송해룡·김원제, 2014). 실제 다수의 연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 인식은 존재할지라도, 이를 개인의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영국인들은 기후변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미국의 경우, 극소수의 대중만이 기후변화를 사회의 장기적 위협으로 인식하며, 일부의 대중만이 기후변화를 개인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이레, 2021; Bord et al., 2000; NSB, 2002; DEFRA, 2002).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위협 인식 측면 외에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인식적 요인의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대응행동에서 예방행동으로 행동 변인들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박혜영, 2021), 기후변화 예방행동을 다루는 연구는 메시지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낙인모형을 적용하여 개인과 기업보다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낙인모형이 기후예방 행동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기후변화 위험 메시지가 가까운 시간적 거리로 개인의 특정 예시를 통해 표현될 때 공중의 기후변화 예방행동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박혜영·김영옥, 2017; 임인재·김영옥, 2020). 김경진과 김영옥(2017)은 메시지와 관련한 기후변화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포괄적이고 추상적 행동 의도는 거시적 행동의도, 구체적이고 실천적 친환경 행동의도는 미시적 행동의도로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 기후 변화에 관련한 이슈 관여도와 불확실성 성향은 미시적 행동 의도와 거시적 행동 의도 모두 영향을 미치나, 메시지 프레이밍과 메시지 불확실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거시적 차원의 행동 의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등 개인의 환경행동 차원에 따라 관여도나 메시지요인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메시지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본 연구는 메시지가 다루어지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이용자의 활동수준, 소통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온라인상의 활동을 반영한 액티비즘이 탄소저감행동과 같은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한편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행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재경과 이우평(2016)은 지식과 정보제공이 적극적인 대응행동의 주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기후위기 위협인식과 대응행동 의도 간에 감정적 반응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

구도 진행된 바 있는데, 공포·불안, 원망·분노, 흥미, 희망 등의 4가지 감정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포·불안과 원망·분노의 부정적 감정은 개인적 대응행동의도에 촉진 효과가 나타났고, 공포·불안과 희망은 사회적 대응행동의도에 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수빈·윤순진, 2022). 그 외에도 기후변화에 관련한 소통에 있어 퍼블릭 인게이지먼트가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실천행동 의도 사이에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현주·유영석, 2020). 이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행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위험인식 등의 인지적·감정적 영역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지만, 촉진·매개적 요인에 있어 온라인상의 소통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현실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사고, 정치적인 논쟁, 환경 위험과 같은 공동체적 문제 상황에서 온라인 및 SNS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기능하며, 온라인상에서는 특정 이슈와 관련해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탐색·취득하거나 선별하여 타인에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행동들이 일어난다(강규영·윤영민, 2019). 특히, 지구온난화/기후변화와 같은 이슈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포함된 정보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Jin & Han, 2014). 한편 일상적으로 접하는 온라인 내 형성되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이해가 실제 친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한 온라인상의 소통과 참여가 일상적인 수준의 탄소저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친환경행동을 다루었던 선행연구에 비추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이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느끼는 감정 요인을 선행변인으로 설정하여 최근 핵심적인 친환경 행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저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및 적극적 활동을 뜻하는 ‘온라인 액티비즘’을 인식과 행동 사이에 매개 요인으로 설정해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이 실질적으로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역할을 검토하였다.

2) 공중상황이론과 친환경 행동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해 공중의 대응 행동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 상황에서 공중의 인식과 대응행동 사이에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 면밀히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인의 위협 판단이나 예방행동 실천과 같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확보하려면 개인의 신념, 태도 및 행동의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이 해당 이슈를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송해룡·김원제, 2012).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친환경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해당 이슈에 대한 공중의 인식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중상황이론은 다양한 환경위험 문제에 적용된 바 있으며(송해룡·김원제, 최홍림·최준혁, 2022; 2014; Lim, Greenwood, & Jiang, 2016; Jiang, Kim, Liu, & Luo, 2019), 이러한 연구들은 공중이 환경위험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러한 공중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신경아, 2013). 그루닉에 따르면 공중상황이론은 커뮤니케이션 행동은 문제해결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purposive action)이며, 사람들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았다(Grunig, 1997). 또한 공중상황이론에서 독립변수로 제시되는 상황인식은 구체적으로 공중의 문제인식(problem recognition), 관여도(level of involvement), 그리고 제약인식(constraint recognition)을 포함하며, 상황인식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행동의 동기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다(Kim & Grunig, 2011).

주요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인식은 문제 상황에서 개인의 경험적 상태와 기대 상태 간의 차이를 뜻하며, 이는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Kim & Grunig, 2011).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추구하거나 무작위로 접하게 되는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현승·김영욱, 2022; Grunig, 1978). 제약인식은 문제 상황에서의 내외부적 장애인식으로(김정남·박노일·김수진, 2014),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문제 해결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Kim & Grunig, 2011). 제약인식이 높으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Grunig & Hunt, 1984). 관여도는 문제 상황과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Kim & Grunig, 2011). 관여도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의 적극성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데, 공중은 어떤 상황이 자신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식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unig & hunt, 1984). 본 연구에서는 문제인식, 관여도, 제약인식

의 세 변인을 공중 커뮤니케이션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국내의 학자들은 상황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지구온난화, 수자원 보호,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공중의 인식이 정보 취득, 정보 선택, 정보 전달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다. (송해룡·김원제, 2014; 최홍림·최준혁, 2022; Lim & Greenwood & Jiang, 2016; Jiang, et al., 2019). 최홍림과 최준혁(2022)은 문제해결 상황이론을 응용하여 미세먼지 문제 개선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마련코자 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상황적 요인인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가 공중의 미세먼지 문제해결 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중의 문제인식, 관여도는 공중의 미세먼지 문제해결 동기에 정적 영향을, 제약인식은 부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과 Grunig(2011)의 연구와 일관성을 보이는 결과이다. 송해룡과 김원제(2014)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상황인식이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했는데 관여도는 정보처리행동과 정보추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문제인식은 정보처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제약인식은 공중의 정보처리행동과 정보추구행동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중이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고 중요한 이슈라고 인식할수록 정보처리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지구 온난화에 관심이 있고, 자신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수록 지구온난화 관련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보를 의도적으로 찾는 것을 발견했다.

공중상황이론은 오랜 시간 적용·검증된 이론인 만큼 다양한 차원의 변인들을 추가 확장하며 발전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초기 공중상황이론은 인지적 차원에 치중해 공중의 감정 상태가 가지는 영향력은 배제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인지적 차원 외에도 정서적 차원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상황인식과 함께 정서의 영향력을 탐색하거나, 상황에 대한 인지적 과정의 결과이자 공중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인으로서 정서의 역할을 살펴보는 시도가 대표적이다(신경아, 2013; 김현정·윤영민, 2020; 이현승·김영옥, 2022; Shin & Han, 2016; Chon & Park, 2020). 이러한 연구들은 정서를 상황인식과 같이 선행변인으로 설정하거나 상황인식과 행동 사이의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는 등 변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다르게 보는 부분은 있었으나 정서적 변인이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는 맥을 같이 했다. 상황에 대한 인식은 특정한 정서와 결합하여 공중의 행동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블레스와 동료들(Bless, Schwarz, & Wieland, 1996)은 인간이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 다른 요소들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는 기분 좋은 느낌을 보존하고자 다른 요소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인지적 요인과 함께 정서적 요인을 선행 요인으로 선정하여 정서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상황이론의 대표적인 확장은 행동의도 및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추가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공중상황이론 창시자인 그루닉은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위험 상황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공중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관련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이현승과 김영옥(2022)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변인들과 아울러 정보추구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위험 대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관여도만 정보추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보추구행동은 적응행동의도와 저감행동의도 중 저감행동의도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m과 동료들(2016)은 상황인식이 커뮤니케이션 행동변인과 인쇄매체 및 블로그 등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거쳐 수자원 보호행동 참여로 연결되는 구조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문제인식은 정보추구와 정보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제약인식은 정보추구에 정적인 영향을, 관여도는 정보탐색과 정보공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변인 중 문제인식이 수자원 보호행동 참여에 핵심 예측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 행동이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수자원 보호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본 연구에서도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변인과 커뮤니케이션 변인인 온라인 액티비즘을 거쳐 탄소저감 생활실천 행동의도와 같은 종속변인을 설정하였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공중의 소통 참여가 활발해지고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공중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는 보다 능동적인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행동 변인을 제시하고 있다(나종연, 2010; 김동연·이현우, 2014; 강귀영·윤영민, 2021; Chon & Park; 2020). 김동연과 이현우(2014)는 쌍방향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바탕이 되는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새로운 공중에 적합한 세분화 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쟁점진행모델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확장하여 정보생산 행동인 정보공유와 정보저작 변인을 제시 후, 최종적으로 공중 커뮤니케이션 행동

을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정보추구(information seeking)’, ‘정보공유(sharing)’, ‘정보저작(publishing)’이라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Chon과 Park(2020)은 중속변인에 해당하는 공중의 무니케이션 행동을 소셜 미디어 액티비즘(Social Media Activism)으로 설명하여, 공중이 소셜미디어 액티비즘에 참여하는 이유와 그 과정을 설명하는 통합적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참여 활동을 (Lee, Tao & Li, 2022) ‘온라인 액티비즘’ 변인으로 제시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공중의 인지적 요인인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 등이 온라인 액티비즘의 소통변인과 결합하여 탄소저감행동이라는 실천적 친환경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상정하고 검증하였다.

3)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정서적 요인(환경 죄책감)과 친환경 행동

감정은 정서(affect)와 기분(mood)을 동반하는 개념으로, 의식적으로 경험한 주관적인 느낌의 상태에 의해 특정 지어지는 일종의 정신적 상태로 정의된다(Westbrook, 1985). 공중의 행동은 상황인식과 같은 인지적 차원 외에도 정서적 차원이 함께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경아, 2013). 이는 정서이론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그 중 사람들이 위험 문제에 대해 태도를 형성하거나 대응 행동을 행하는 것에 있어 정서가 하나의 휴리스틱으로써 작용하는 감정 휴리스틱(affect heuristic)으로부터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이현승·김영옥, 2022). 감정 휴리스틱은 위험과 관련된 의사결정 상황에서 감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험을 판단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이론이다(Slovic et al., 2013).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어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을 두어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때 감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Slovic et al., 2007). 감정 휴리스틱관점에서 정서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독립적으로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이론화 되었고 정서 경험이 특정 행동성향을 유발한다고 본다(이현승·김영옥, 2022).

한편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이슈와 관련된 대표적 정서로는 환경 불안(Eco-anxiety), 기후 슬픔(Climate grief), 환경 죄책감(Eco-guilt) 등이 있는데(Stanley, et al., 2021),

이 중 환경 죄책감은 실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로 지목되어왔다(김주환·한미정, 2019; 곽연경·전도현, 2021; Mallett, 2012; Schneider et al., 2017). 죄책감이란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반하는 의도나 행동을 보였거나 공고한 사회적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이고 불쾌한 감정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감정이다(Elgaaied, 2012). 개인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감정인 죄책감은 행동에 대해 스스로 괴로워하거나 행동에 대한 회한이나 후회의 감정을 내포 한다(곽연경·전도현, 2021; Tangney, et al., 1996). Schmader와 Lickel(2006)에 따르면 유발된 죄책감은 스스로 행동에 의해 손상된 것을 복구하거나 회복하려는 반응으로 이어진다. Mallett(2012)는 개인이 환경에 가치를 두고 선택 시,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을 선택하지 않음에 대해 후회가 드는 순간 죄책감이 발생하는데, 이처럼 개인의 환경 행동에 연관되어 경험하는 죄책감을 환경 죄책감(Eco-guilt)이라 설명하였다.

환경 위험 문제에서 겪는 환경 죄책감은 일반적으로 친환경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Elgaaied(2012)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 훼손에 대한 죄책감은 환경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느껴지는 불쾌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적 보존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Schneider와 그의 동료들(2017) 역시, 죄책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피하고자 할 때 친환경적인 행동에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죄책감은 친환경적 행동으로 변화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환경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과거의 실패가 부여하는 죄책감이 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멀티미디어 영역에서도 확인되었다. Moore 와 Yang(2020)이 Eco라는 환경 게임 노출과 실제 현실의 환경 행동의도 사이에서 환경 죄책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게임을 통해 발생한 환경죄책감이 현실의 환경 행동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침을 밝혀졌다. 특히, 가장 낮은 환경태도를 가진 집단이 친환경 행동의도에 가장 큰 변화를 보였는데, 과거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했던 참가자들 사이에서 더 큰 죄책감과 책임감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Moore & Yang, 2020). 이를 통해 도덕적 감정인 환경죄책감은 과거 잘못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능을 가지며 환경 커뮤니케이션에서 멀티미디어 이용은 환경 행동 촉진요인으로서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 죄책감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에서도 연구되어 왔는데, 김주환과 한미정(2021)은 병행과정 확장 모델(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EPPM)의

관점에서 지각된 위협과 효능감이 1회용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태도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에 있어 예기된 죄책감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예기된 죄책감은 친환경 행동에 대한 태도 및 일상적 친환경 행동 의도와 참여적 친환경 행동 의도를 높이는 데 유의미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죄책감은 1회용품 사용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증한 배달 음식 소비자들에게서도 나타났는데, 배달 음식 소비자들의 에코 죄책감이 클수록 친환경 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연경·전도현, 2021). 본 연구는 탄소저감행동과 같은 친환경행동을 촉진하는데 ‘환경 죄책감’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4) 온라인 액티비즘과 친환경행동

(1) 온라인 액티비즘의 개념

액티비즘은 주로 정치학 및 사회학에서 다루어져왔고 일반적으로 일반 공중이 집단적 행동을 통해 사회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논쟁적인 행위로 정의된다(Tilly, 2015). 우리말로로는 ‘행동주의’ 로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는 activism뿐만 아니라 behaviorism이라는 서로 다른 학문적 개념을 번역하는 용어로도 쓰이기 때문에 개념 혼동 및 범용의 우려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최근 학계에서는 activism을 액티비즘으로 표기하는 경향을 보인다(김미경, 2019; 김희경, 2019; 이준희·차희원, 2022). 전통적으로 액티비즘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저항의 실천을 위해 다수 혹은 소수의 액티비스트(activist)가 내세운 구호와 슬로건에 공감하거나 참여하며 함께 행동에 나서는 것이 특징이다(신정아, 2021). 액티비즘은 형식 및 실행 도구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데 예술 창작을 활용하거나(Artivism), 돈을 쓰는 행위(Economic activism) 외에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오프라인 중심으로는 집회, 시위, 파업, 단식 및 팸플릿 제작 등의 방식이 있으며, 온라인 중심으로는 온라인 액티비즘, 비디오 액티비즘, 모바일 액티비즘, 트랜스미디어 액티비즘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김희경, 2019).

온라인 공간은 이슈를 중심으로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퍼뜨려 많은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대규모의 즉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

는 개인 혹은 타 집단과의 연결을 통해 가상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액티비즘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되었다(Gurak & Logie, 2003; Chon & Park, 2020). 온라인 속 공중은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행동하거나 비정부조직이나 사회운동조직에 보다 유연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콘텐츠에 대한 공감 표시 및 댓글 게시, 온라인 불매 운동, 온라인 청원, 해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이준화·차희원, 2022), 이는 대면 또는 대중 매체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위계를 무너트리고 보다 민주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Bennett & Segerberg, 2012). 이같이 온라인 액티비즘은 아래로부터의 의제설정 및 상호작용적 여론형성 그리고 새로운 사회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우영, 2006; 최미연·이형석, 2021; Rheingold, 2007). 위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액티비즘을 ‘어떠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중의 사회참여 방식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온라인 액티비즘의 선행요인과 친환경 행동

PR영역에서 액티비즘(activism)은 ‘활동 공중이 문제로 여기는 정책, 관행 또는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단체나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된다(Chon & Park, 2020). PR연구자들은 액티비즘의 근간이 의사소통 과정, 즉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적 이슈 상황을 집단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이준화·차희원, 2022; Kim, 2013; Chon & Park, 2019). Tarrow(2011)도 액티비즘을 권력자에 대한 집단적 도전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집단 행동은 일반 공중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 마케팅, 로비, 대의 정치 등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사회변화를 위해 공중이 스스로 공동의 의미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액티비즘은 PR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Kim, 2013).

액티비즘은 실행 과정에 있어서도 상황이론의 커뮤니케이션 행동변인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해결 상황이론에 따르면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와 같은 요인들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일으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참여한다고 설명한다. 액티비즘의 과정 역시 공중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Issue

Awareness), 해당 문제에 관여(Engagement)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Action)에 참여하며, 이것이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Change)를 이끌어내는 일련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김희경, 2019; 박혜령, 2022). 이러한 관점에서 액티비즘과 문제해결 상황이론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은 상황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해결적 행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띄며, 온라인 액티비즘은 공중이 보여주는 온라인상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Chon과 Park(2020)은 문제해결 상황이론 모델에서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소셜 미디어 액티비즘(Social Media Activism)으로 개념화하였다. 총기소유, 이민, 경찰권력 남용과 같은 사회 논쟁적 쟁점들에 관련해서 소셜 미디어 액티비즘을 사전적 및 사후적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 측정했는데, 사전적 차원은 게시물 생성을 중심으로 사후적 차원은 리트윗, 언급 등의 공유행동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상황인식인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는 공히 상황적 동기화를 거쳐 소셜 미디어 액티비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과 윤영민(2020)의 경우도 문제해결 상황이론을 적용하여 기업의 갑질이라는 문제 상황에서 상황 변인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인인 분노와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공중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때 제약인식만이 유효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문제 해결에 대한 제약인식이 낮을 때 온라인 정보취득, 선택, 전달의도 등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인 분노와 실망감의 경우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분노는 온라인 정보취득과 정보전달의도에 영향을 미친 반면 실망감은 온라인 정보취득과 정보선택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위협에 관련한 연구에서도 온라인 액티비즘에 대한 선행요인을 고찰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강귀영과 윤영민(2019)은 환경위험 문제인 싱크홀 현상에 대한 상황인식과 불안과 분노라는 부정적 감정이 SNS 내 공중들의 행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문제 인식과 관여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제약 인식이 낮을수록 SNS상에서 정보활동 및 소통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싱크홀 현상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려는 의도, 전달과 공유의도, 그리고 싱크홀 현상과 관련한 정보에 주목하거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으려는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정적 감정과 관련해서는 불안감은 공중의 SNS 내 정보 행동인 정보 선택, 정보 전달, 정보 취득 의도에 모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험하는 불안과 슬픔이 커질수록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관련한 온라인 액티비즘의 개념화에 기본적인 토대를 제시한 강귀영과 윤영민(2021)은 사회이양모델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 공중이 수행하는 자발적 PR 커뮤니케이션 행동 변인을 도출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상에서 공중의 사회참여적 성격을 반영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소통을 개념화했는데, 리트윗과 해시태그 등을 통한 ‘상호연결 행동’, 의견을 직접 생산하고 토론하는 ‘대화/토론 행동’, 타 이용자에게 특정행동 참여를 권유하는 ‘홍보 행동’, 특정 메시지에 대해 자신의 참여와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지지표현 행동’이라는 4가지 소통유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러한 소통유형은 ‘자발적 홍보 행동’과 ‘자발적 연결 행동’으로 2개의 유형으로 통합되었는데, ‘자발적 홍보 행동’은 4가지 행동차원 중에 ‘대화/토론 행동’, ‘홍보 행동’, ‘지지표현 행동’이 결합된 개념으로, 소셜 미디어 내 이용자가 콘텐츠의 생산자 역할을 하여 의견을 직접적으로 생성·게시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전파·확산시키는 행동들을 포함한 것이다. ‘자발적 연결 행동’은 ‘상호연결 행동’ 유형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탐색이나, 리트윗, 해시태그를 통해 이용자들 간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해 상호작용을 이루는 행동을 뜻한다. 강귀영과 윤영민(2021)은 ‘자발적 홍보 행동’은 콘텐츠 및 정보의 직접적인 생산과 관련된 보다 행동적 차원의 행위이며, ‘자발적 연결 행동’은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유대감을 추구하는 관계 지향적 차원의 행위로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액티비즘의 주요 요인을 정보 행동을 통한 타인과의 연결과 온라인 청원 및 투표 등과 관련한 지지표현 행동으로 규정하고 강귀영과 윤영민(2021)의 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액티비즘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문제 상황에 대한 인지적 요인이나 부정적 감정이라는 정서적 요인이 공중들의 온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적극적인 정보탐색 및 전달 및 공유행동은 온라인 액티비즘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환경 죄책감이 직접적으로 온라인상의 소통이나 온라인 액티비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환경 불안, 기후변화에 관련한 슬픔, 실망감 등과 함께 환경 죄책감이 환경문제에 관련한 대표적 부정적

감정임을 고려할 때, 환경 죄책감 역시 온라인 액티비즘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온라인 액티비즘의 매개적 역할과 친환경 행동

액티비즘은 대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고, 사회적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를 걸쳐서 전개된다(김희경, 2019). 이 과정에서 디지털 환경 및 기술은 문제의식을 알리고, 관여하고, 행동하는 방식과 연결될 수 있다. 디지털 환경 내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개인들은 저비용으로 빠른 시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성·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시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사회를 바꾸는 방법을 모색해왔다(박혜령, 2022). 바람직한 변화의 과정에서 디지털 액티비즘은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 행동하는 방법 등을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하며 확산하고,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통해 참여를 모색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등 큰 노력 없이 쉽게 사회적 행동과 실천을 창출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게으름뱅이(slacker)’와 ‘행동주의(activism)’의 합성어인 ‘슬랙티비즘(Slacktivism)’이라는 용어를 통해 가상의 공간에서 일회적이며 자기만족을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사회변화를 이룰 수 없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한다(조소영, 2022). 하지만 디지털 액티비즘이 가지는 저비용 저위험의 속성은 다양한 공중에게 빠르게 도달하고 행동목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Glenn, 2015).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온라인 액티비즘의 역할은 종속변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 및 매개변인으로도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Chon 과 Park(2020)의 경우, 총기소유 등의 이슈에서 소셜 미디어 액티비즘이 상황적 동기와 행동변인 간에 부분적 매개 효과를 보이며 오프라인 액티비즘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김상애와 김현정(2018)은 다문화 구성원과의 갈등을 주제로 소통 경험이 소셜 경험 및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소셜 미디어에서의 소통 경험은 소통에 대한 문제인식 및 개선인식, 소통정서, 소셜행동과 오프라인 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댓글, 공유와 같은 소셜 미디어 내 사회적 지지는 소셜 경험과 행동 반응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 매개효과를 하는 것을 나타났다. 댓글 공유와 동일 미디어 내 사회적 지지는 소셜 행동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디어(온라인)

에서 타인의 행동(댓글, 공감표시, 공유 등)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소통이 일종의 사회적 지지로 작용하게 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기부, 사회인식 교육 참여, 사회인식 재고 가두 행진 등 직접적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미경과 장안리(2022)는 MZ세대를 대상으로 환경인식(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성, 중요성, 친환경 인식 등)과 행동적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 역할을 4단계로 탐색하였는데 소셜미디어가 계기 - 인식 - 정보취득 - 행동의 과정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환경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다소 수동적이었다가 저마다 어떤 계기로 인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한편 환경보호 실천 과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학습이 발생했는데, 책보다는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내 해시태그나 팔로우를 통해 친환경 행동에 대한 정보를 취득했고, 배운 방법을 하나씩 실천하여 범위를 넓혀나갔다. 적극적 참여자의 경우,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모임에 참가하고, 댓글 등을 통해 격려 및 동기부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식에서 행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온라인상의 활동성이 촉진 역할이자 매개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온라인 액티비즘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프라인 활동에 자신 또는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매개역할이자 촉진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김미경·장안리, 2022; Chon & Park, 2020). 특히 최근 온라인 내 AI 알고리즘은 ‘사용자 맞춤 추천’을 통해 사용자에게 초개인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필터링 된 정보만 반복해서 도달시키는 ‘필터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생겨나는 매체 상황을 고려해보면, 친환경 행동에 대한 검색, 좋아요, 공유, 해시태그 등을 포함한 온라인 액티비즘은 개인의 인식과 정서 더 나아가 행동촉진 및 강화에도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개념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가설 1-1: 지구온난화 관련한 문제인식은 친환경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지구온난화 관련한 제약인식은 친환경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지구온난화 관련한 관여도는 친환경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지구온난화 관련한 환경 죄책감은 친환경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지구온난화 관련한 문제인식은 온라인 액티비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지구온난화 관련한 제약인식은 온라인 액티비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지구온난화 관련한 관여도는 온라인 액티비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지구온난화 관련한 환경 죄책감은 온라인 액티비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온라인 액티비즘은 친환경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1: 온라인 액티비즘은 지구온난화 관련한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 및 환경 죄책감 요인과 친환경 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보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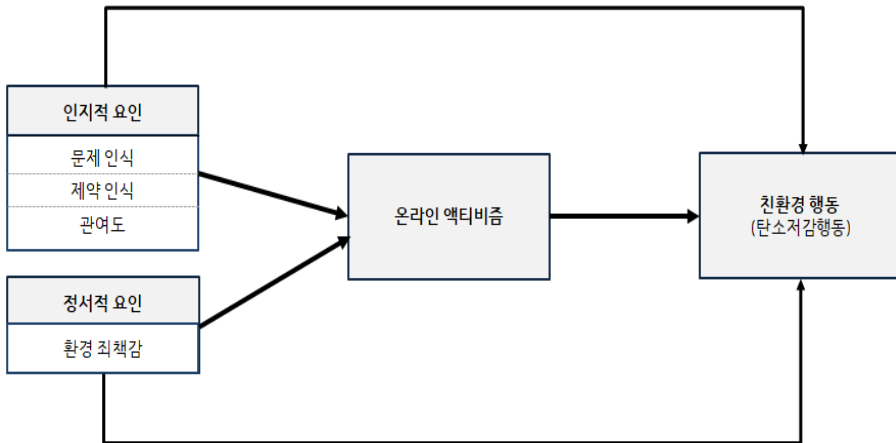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실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을 목적으로 온라인 액티비즘의 개념에 주목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상황 인식과 환경죄책감이 온라인 액티비즘을 거쳐 어떻게 탄소저감행동변인에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온라인 리서치 회사를 통해 연구대상 모집 및 조사를 진행했으며, 연구 대상은 만 20~69세의 성인으로, 전체 보유 패널 중에서 비례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을 사용하여 연령대별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2년 11월 9일부터 일주간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참가자들의 답변 380개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 및 데이터를 저해할 수 있는 이상치를 제외한 결과, 총 367명의 자료가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최종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184명(50.1%), 여자가 183명(49.9%)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74명(20.2%), 30대가 74명(20.2%), 40대가 72명(19.6%), 50대가 73명(19.9%), 60대가 74명(20.2%)로 설문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은 고루 분포되었다.

2)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연구를 위한 설문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출생연도와 같은 개인정보와 아울러 연구참여 동의서를 제시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지적 요인(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과 정서적 요인(환경 죄책감), 온라인 액티비즘, 그리고 친환경 행동 문항이 순서대로 제시되었다. 온라인 액티비즘의 측정문항의 경우 '온라인상'이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할 수 있어 지시문에서 '커뮤니티, 인터넷 뉴스, 동영상 플랫폼,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와 같은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상황'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다.

(1) 지구온난화 상황에 대한 인지적 요인

지구온난화 상황에 인지적 요인은 상황이론(Grunig, 1997)을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측정문항은 최근 연구들을 참고하여 수정을 거쳤다.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 변인의 각 측정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a) 문제인식

문제인식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 및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Kim & Grunig(2011), 김현정과 윤영민(2020)의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세부 측정 문항은 ‘지구온난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b) 제약인식

제약인식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제약 및 한계성을 인식하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김현정과 윤영민(2020), Jiang과 동료들(2019)의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고, 경우에 따라 역코딩도 이루어졌다. 세부 문항은 ‘나는 내 개인의 노력에 따라 지구온난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어떤 행동도 주저 없이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믿는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 관여도

관여도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송해룡과 김원제(2014), 최홍림과 최준혁(2022)의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세부 문항은 ‘지구온난화 문제는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나에게 있어 중요한 이슈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정서적 요인 - 환경 죄책감

지구온난화 이슈와 관련하여 환경 죄책감(eco-guilt)은 기후변화 맥락에서 환경 불안, 환경 죄책감, 환경 슬픔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goston et al. (2022)의 측정문

이 있다.’ 로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4) 탄소저감행동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한 친환경 행동으로 탄소저감행동을 선정하였다. 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분인 만큼 ‘탄소저감행동’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 친환경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탄소저감행동은 ‘탄소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및 실행’으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각 측정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은 환경부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2021)의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환경부는 실천 용이성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1단계~3단계로 구분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냉난방 온도 조절, 전기밥솥 보온기능 사용 절감, 물 받아서 사용하기 등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어 습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2단계는 1단계보다 실천이 어려운 창틀 및 문틈 바람막이 설치,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 절수 설비 설치 등이 있다. 3단계는 앞선 단계들에 비해 고비용이 들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방법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LED 조명으로 교체, 친환경 콘텐싱 보일러 사용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탄소절감 실천 행위 참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10%참여 효과와 가구당 비용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칙들을 선정하여 각 단계별로 2문항씩 총 6문항을 구성하였다.

세부 측정 문항으로는 ‘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냉난방 온도 조절을 한다.’, ‘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설거지통, 양치컵 등을 사용하여 물을 받아서 사용한다.’, ‘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창틀과 문틈에 바람막이를 설치하였다.’, ‘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전제품 대기전력을 차단한다.’, ‘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반 형광등, 백열등 대신 LED 조명을 사용한다.’의 6문항을 측정하였다.

표 1. 주요 변인의 측정

분류	주요변인	세부측정문항	참고연구
독립 변인	문제인식	지구온난화 문제는(를) ①심각한 사회 문제다. ②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다. ③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Kim&Grunig (2011), 김현정&윤영민 (2020)
	제약인식	나는 ①내 개인의 노력에 따라 지구온난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②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어떤 행동도 주저없이 할 것이다. ③지구온난화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믿는다.	김현정&윤영민 (2020) Jiang et al. (2019)
	관여도	지구온난화 문제는 ①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②나에게 있어 중요한 이슈이다. ③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송해룡&김원제 (2014), 최홍림&최준혁 (2022)
	환경 죄책감	나는 ①피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종종 환경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나 자신을 비난한다. ②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③때때로 지구 온난화의 문제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느낀다.	goston et al. (2022)
매개 변인	온라인 액티비즘	나는 온라인상에서 ①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된 게시물에 공감할 것이다. ②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된 게시물을 공유할 것이다. ③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된 인물이나 페이지를 팔로우 혹은 구독할 생각이 있다. ④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된 게시물에 댓글을 달 것이다. ⑤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된 게시물을 보고 그것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생각이 있다. ⑥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해 보고 싶다. ⑦지구온난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온라인서명이나 투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⑧지구온난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온라인서명이나 투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참여하라고 권유할 것이다. ⑨지구온난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온라인서명이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⑩지구온난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온라인서명이나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⑪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서명이나 투표에 참여하고 나의 계정에 인증할 것이다. ⑫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게시물을 응원하기 위한 해시태그(예: #친환경 #업사이클링 #기후위기)를 달 생각이 있다.	강귀영&윤영민 (2021)
종속 변인	탄소저감 행동	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①냉난방 온도 조절을 한다. ②설거지통 양치컵 등을 사용하여 물을 받아서 사용한다. ③창틀과 문틈에 바람막이를 설치하였다. ④가전제품 대기전력을 차단한다. ⑤고효율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⑥일반 형광등 백열등 대신 LED 조명을 사용한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 (환경부, 2021)

3) 분석방법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은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SPSS 23.0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탐색적 요인 분석(EFA)를 실시 후, 추출된 요인의 신뢰도 및 기술 통계, 이변량 상관 분석과 SPSS 프로세스 매크로 v4.2(PROCESS Macro v4.2)를 활용하였다. 먼저 각 요인들의 영향력 및 온라인 액티비즘이 인지적 요인 및 정서적 요인과 종속변수인 탄소저감행동 간에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세스 매크로 v4.2(PROCESS Macro v4.2)를 실행하였다. 프로세스 매크로(PROCESS macro)는 프리처와 헤이즈(Preacher & Hayes, 2004)가 개발한 후 헤이즈(Hayes, 2017)가 발전시켰으며, 부트스트랩으로 전체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해 주며 간접효과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확인하는데 효과적이다. 프로세스 매크로(Process macro)는 Baron & Kenney의 분석방법과는 달리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의 모델에서 조절 및 매개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4. 연구 결과

1) 요인분석 결과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변인들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은 변수와 요인 간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거나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연구에서 활용되는 기법으로, 변수 간의 구조를 조사하고 통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최창호·유연우, 2017). 본 연구의 경우, 상황이론에서 도출된 인지적 변인은 충분히 체계화가 되었으나, 온라인 액티비즘 및 탄소저감행동의 경우 개념 구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개념들이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구성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요인추출 방식과 베리맥스(Varimax) 요인회전 방법을 사용하

였다. 먼저,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KMO의 표본적합도 검정 지수는 .94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은 .000으로 변인과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을 분석한 결과, 인지적 요소(독립)가 3개 요인으로, 환경죄책감(독립)이 1개 요인, 온라인 액티비즘(매개)과 탄소저감행동(종속)은 단일 요인으로 총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온라인 액티비즘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2개의 요인으로 나뉘져 있었으나, 분석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탄소저감행동 역시 선행연구에서는 행동의 단계별로 2문항씩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분석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각 요인들의 초기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이었으며, 변인의 분산이 측정 문항에 의해 설명된 수준을 나타내는 공통성은 모든 문항이 .5이상으로 나타났다. 변인과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척도인 요인 적재량은 일반적으로 .5 이하일 경우 문항 삭제를 고려하는 것을 권고 있다(정택원, 2012). 한편 본 연구에서 온라인 액티비즘의 경우 0.49로 기준에 근사하고 공통성이 .5 이상이므로 온라인 액티비즘의 모든 문항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추출된 요인의 누적분산비는 6개 요인이 전체 분산의 70.87%를 설명하여 일반적인 기준인 60%를 상회하였다.

표 2. 요인적재량 및 누적분산비 결과

항목	공통성	요인적재량					
		1	2	3	4	5	6
온라인 액티비즘12	.78	.86	.17	.02	.11	.08	.06
온라인 액티비즘11	.79	.85	.16	.06	.07	.14	.10
온라인 액티비즘5	.77	.83	.12	.03	.13	.11	.19
온라인 액티비즘4	.75	.82	.12	.05	.13	.13	.17
온라인 액티비즘6	.71	.82	.05	.05	.15	.08	.12
온라인 액티비즘8	.75	.81	.21	.13	.11	.07	.13
온라인 액티비즘9	.77	.81	.22	.13	.16	.13	.11
온라인 액티비즘10	.76	.81	.21	.16	.12	.11	.12
온라인 액티비즘7	.74	.79	.23	.15	.12	.11	.07
온라인 액티비즘3	.68	.71	.10	.16	.34	.14	.04
온라인 액티비즘2	.59	.69	.05	.12	.27	.15	.07
온라인 액티비즘1	.58	.49	.15	.31	.40	.26	.02

항목	공통성	요인적재량					
		1	2	3	4	5	6
탄소저감행동3	.57	.20	.72	.01	.09	-.09	.02
탄소저감행동4	.54	.10	.70	.04	.11	.13	.10
탄소저감행동5	.63	.13	.68	.28	.15	.10	.18
탄소저감행동2	.57	.31	.65	-.06	.05	.21	.00
탄소저감행동1	.58	.31	.62	.01	.04	.24	.16
탄소저감행동6	.53	.03	.60	.38	.07	-.01	.11
문제인식3	.81	.11	.17	.86	.01	.11	.14
문제인식1	.83	.21	.06	.85	.09	.22	.07
문제인식2	.80	.15	.09	.84	.03	.25	.06
환경죄책감1	.81	.21	.15	.03	.84	.18	.09
환경죄책감2	.82	.33	.12	.02	.81	.13	.16
환경죄책감3	.79	.34	.16	.07	.76	.13	.21
관여도3	.80	.19	.15	.23	.15	.81	.13
관여도2	.77	.27	.14	.22	.25	.73	.18
관여도1	.68	.20	.12	.28	.14	.71	.16
제약인식1	.75	-.16	-.14	-.16	-.20	-.02	-.80
제약인식3	.71	-.20	-.15	-.09	-.04	-.28	-.75
제약인식2	.59	-.35	-.18	-.05	-.23	-.22	-.58
초기고유값		12.42	2.90	1.94	1.78	1.19	1.03
분산비율		27.45	1.67	9.43	8.96	7.89	6.47
누적분산비		27.45	38.12	47.54	56.51	64.39	70.87
KMO의 표본적합도(MSA)검정		.94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7996,221					
	자유도	435					
	유의확률	.000					

2) 신뢰도와 상관관계 분석

6개 변인에 대한 신뢰도 및 상관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측정 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alpha = .96 ~ .74)는 기준치(.70)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Kline, 1986; Nunally, 1978). 변인 간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제약인식은 모든 변인과 부적 상관관계($r = -.50 \sim -.34$)를, 제약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은 각각 정적 상관관계

($r = .230 \sim .55$)를 타나냈다. 그 중 환경죄책감과 온라인 액티비즘의 상관성이 .55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모든 변인 간 상관관계는 $p < .001$ 의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이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 참조).

표 3.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	환경죄책감	온라인 액티비즘	탄소저감 행동
문제인식	1					
제약인식	-.34***	1				
관여도	.51***	-.50***	1			
환경죄책감	.23***	-.47***	.47***	1		
온라인액티비즘	.35***	-.50***	.49***	.55***	1	
탄소저감행동	.33***	-.43***	.41***	.38***	.48***	1
Cronbach's α	.90	.74	.85	.89	.96	.81
M	4.48	2.46	3.78	3.27	3.27	3.63
SD	.59	.65	.73	.81	.76	.66

*** $p < .001$.

3) 연구문제 검증

본 연구는 종속변인인 탄소저감행동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대중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 등 인지적 요인과 죄책감 등 정서적 요인이 탄소저감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이 온라인 내에서의 소통 활동인 온라인 액티비즘에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액티비즘이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인지적, 정서적 요인과 탄소저감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헤이즈(Hayes, 2017)의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4를 적용하고,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한 후 신뢰구간은 95.0%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온라인 액티비즘을 매개변인으로,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와 환경 죄책감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4차례에 걸쳐 분석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인구 및 성별과 분석

대상에 속하지 않는 독립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헤이즈의 프로세스 매크로의 경우, 비표준화계수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매개 효과에 한정하여 표준화 계수로 선택 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 간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설 1-1, 2, 3〉에서 인지적 요인이 탄소저감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 2〉에서는 정서적 요인이, 〈가설 4〉에서는 온라인 액티비즘이 친환경 행동인 탄소저감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예측하였다. 탄소저감행동이 종속변인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가설 1-1,2,3〉인 인지적요인이 탄소저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문제인식($\beta=.105, p<.05$)은 정(+의 영향을, 제약인식($\beta=-.169, p<.005$)은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행변인인 관여도($\beta=.088, p>.05$)가 종속변인인 탄소저감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설1-1〉과 〈가설1-2〉는 지지, 〈가설1-3〉은 기각되었다.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지구 온난화 상황에 대한 정서적 요인인 환경죄책감이 탄소저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환경 죄책감은 탄소저감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96, p>.05$). 이에 따라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가설 4〉인 온라인 액티비즘이 탄소저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온라인 액티비즘은 탄소저감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4, p<.001$).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한 ‘좋아요, 댓글, 공유’등의 온라인 소통 활동이 탄소저감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가설 4〉는 지지되었다. 각 선행변인들이 탄소저감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절댓값을 비교한 결과, 온라인 액티비즘>제약인식>문제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가설 3-1, 2, 3, 4〉에서는 선행변인인 인지적 요인(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과 정서적 요인(죄책감)이 온라인 액티비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온라인 액티비즘이 종속변인인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모든 선행변인은 온라인 액티비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제인식($\beta=.124, p<.05$)과 관여도($\beta=.166, p<.005$), 환경죄책감($\beta=.361, p<.001$)은 정(+의 영향을, 제약인식($\beta=-.204, p<.001$)은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β 절댓값을 비교한 결과, 환경죄책감>제약인식>관여도>문제인식 순으로 온라인 액티비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3-1, 2, 3, 4)는 모두 지지되었다.

〈연구문제 1〉은 선행변인인 인지적 요인(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과 정서적 요인(죄책감)이 탄소저감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온라인 액티비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6>.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검증 결과 95% 신뢰 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각각의 변인 모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인지적 요인인 문제인식(Effect: .033, BootSE=.015, [CI]=[.008, .068]), 제약인식(Effect: -.049, BootSE=.018, [CI]=[-.089, -.019]), 관여도(Effect: .036, BootSE=.016, [CI]=[.01, .072])와 정서적 요인인 환경 죄책감(Effect: .07, BootSE=.023, [CI]=[.029, .119])은 온라인 액티비즘을 통해 탄소저감행동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액티비즘의 매개적 역할에 대해서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 및 제약인식과 탄소저감행동 간에는 부분 매개의 역할을 보이는 반면 관여도 및 환경죄책감과 탄소저감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표 6>에서 보이듯이 간접 매개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에 따라, 〈연구문제 1〉은 지지되었다.

표 4.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지적/정서적요인, 온라인 액티비즘이 탄소저감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 탄소저감행동							
	β	SE	t	ρ	95% 신뢰구간		$R^2 = .325$ $F(7, 359) = 24.729$ $P < .001$
					LLCI	ULCI	
문제인식	.105	.057	2.048	.041	.005	.23	
제약인식	-.169	.055	-3.095	.002	-.279	-.062	
관여도	.088	.053	1.496	.135	-.025	.183	
환경죄책감	.096	.045	1.715	.087	-.011	.166	
온라인액티비즘	.24	.005	4.124	<.001	.01	.028	

표 5.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지적/정서적요인이 온라인 액티비즘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 온라인액티비즘							
	β	SE	t	ρ	95% 신뢰구간		$R^2 = .443$ $F(6, 360) = 47.737$ $P < .001$
					LLCI	ULCI	
문제인식	.124	.653	2.674	.008	.462	3.028	
제약인식	-.204	.618	-4.231	<.001	-3.829	-1.399	
관여도	.166	.598	3.173	.002	.721	3.073	
환경죄책감	.361	.48	7.663	<.001	2.732	4.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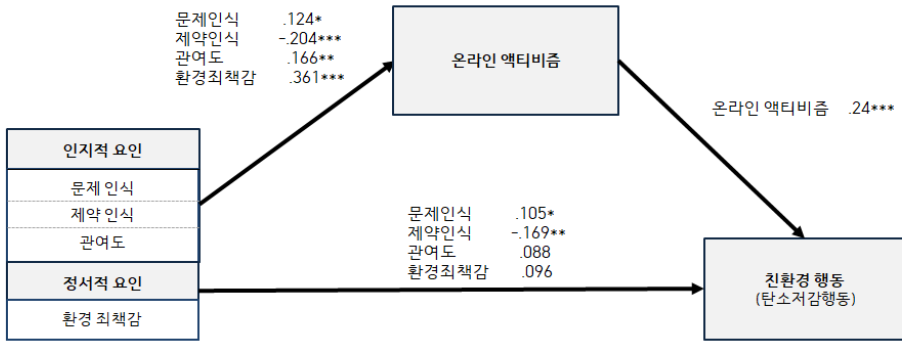


그림 2. 인지적/정서적 요인과 탄소저감행동 사이에서 온라인 액티비즘 경로분석 결과

표 6. 인지적/정서적 요인과 탄소저감행동 사이에서 온라인 액티비즘의 간접효과 검증

경로	Effect	BootSE	95% 신뢰구간	
			BootLLCI	BootULCI
문제인식 → 온라인 액티비즘 → 탄소저감행동	.033	.015	.008	.068
제약인식 → 온라인 액티비즘 → 탄소저감행동	-.049	.018	-.089	-.019
관여도 → 온라인 액티비즘 → 탄소저감행동	.036	.016	.01	.072
환경죄책감 → 온라인 액티비즘 → 탄소저감행동	.07	.023	.029	.119

5. 결론 및 함의와 한계점

본 연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상황에 대한 실천적 대응인 탄소저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해 우리나라 성인 응답자들은 어떤 상황인식을 갖고 있는지 문제인식, 제약인식 및 관여도의 변인을 통해 살펴보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에 근거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관련한 환경죄책감을 정서적 변인으로 설정하여 탄소저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터넷기반 매체를 통한 소통이 보편화 되어있고 정부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의 환경 문제에 대한 소통의 중심이 다양한 형태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커뮤니티 환경을 고려하여 온라인 액티비즘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탄소저감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문제인식과 제약인식은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문제의식이 높을수록 응답자들은 일상에서 탄소저감행동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약인식의 경우, 부적인 관계성을 보였다. 인지적 요인 중 관여도와 환경죄책감은 탄소저감행동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과 상관없이도 전기나 물 절약과 같은 탄소저감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비용을 수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련성 인식을 수반하지 않고도 응답자들의 일상에서 실천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환경파괴나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가책 등의 정서와 관계없이 일상생활에서의 탄소저감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러한 정서적 반응과 실천행동을 연결해주는 어떤 촉진작용이나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F.G.I를 통해 MZ세대의 환경인식과 행동적 차원을 탐색한 김미경과 장안리(2022) 연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환경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다소 수동적이었다가 저마다 어떤 계기로 인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언급을 보고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관련을 인식하는 관여도나 환경문제나 파괴에 대한 책임감이나 죄책감 등의 감정이 친환경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소통을 통한 계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온라인 액티비즘이 선행변인들과 종속변인인 탄소저감행동 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한 결과 문제인식과 제약인식에 있어서는 온라인 액티비즘이 부분적으로 매개를 보이며 탄소저감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관여도와 환경죄책감은 온라인 액티비즘을 거쳐야만 탄소저감행동으로 유의미하게 연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온라인 액티비즘이 탄소저감행동에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갖는 변인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이슈에 개인적 관심과 개인적 관련성과 온라인상의 다양한 소통활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소통반응 등과 결합하여 자신의 탄소저감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환경죄책감의 경우에도 이러한 가책이 응답자들의 탄소저감행동에 직접적으로는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 공감적인 소통활동이나 팔로우 및 구독, 해시태그 붙이기 등의 액티비즘

활동이 매개가 되면 탄소저감행동으로 연결되는 완전매개가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액티비즘이 높을수록 탄소저감행동 점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직접효과 또한 온라인 액티비즘 변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온라인 액티비즘의 역할을 검증한 결과를 통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이나 효과가 검증되었고 현재 다양한 조직에서 실행하는 온라인 중심 소통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소통활동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높은 수준의 액티비즘을 확보하게 된다면 탄소저감행동과 같은 친환경행동의 유발이나 촉진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

한편 본 연구의 전체적인 틀에서 보았을 때 종속변인인 탄소저감행동과 가장 높은 관계성을 보인 변인 또한 온라인 액티비즘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제약인식, 문제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 액티비즘을 온라인 내에서 저비용으로 일어나는 일회성 참여이며, 궁극적인 사회변화를 이룰 수 없는 ‘슬랙티비즘’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 온라인 액티비즘이 실질적인 행동인 탄소저감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인 것이 밝혀졌다. 온라인 상에서 클릭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추구와 정보습득이 실제 오프라인의 행동 변화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입증되어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시사점은 공중이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접하는 온라인 매체에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위기에 대한 게시물을 접하고, 공감·공유, 그리고 댓글 등의 반응과 상호작용 등이 이루어지는 소통활동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액티비즘이 발현되기 위한 요인으로써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인식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지구온난화가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제고되고 강조되면 온라인상의 활동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액티비즘의 선행요인으로 제약인식으로 나타났는데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통제감이 낮을수록 온라인 액티비즘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개인이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줄이는 일에 참여하거나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문제해결의 한계를 해소해주는 정보나 행동적 가이드라인 등의 제시는 직접적으로 탄소저감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온라인 액티비즘을 통해 일상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EPPM(Extended Parallel Processing Model)에서 구성한 메시지 요소인 위협과 효능감 조합과도 일견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활성화,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분위기 형성 등은 탄소저감행동과 같은 친환경행동으로 연결되는데 핵심적인 동인으로 볼 수 있겠다.

최근 ESG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기관 뿐 아니라 기업들도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이슈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직에서도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위협적 기후관련 사건들을 강조한 문제인식을 높이는 콘텐츠와 아울러 개인이 기여할 수 있고 환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조하여 제약인식을 낮추는 콘텐츠를 함께 제공한다면 온라인상에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실증된 온라인 액티비즘의 중요성을 실무차원에서 적용한다면 위에 설명한 문제인식이나 제약인식 등의 인지적 요소 외에도 인터넷 기반 소통환경에서 다양하고 상호작용적인 온라인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하는 도전에 봉착한다. 온라인상에서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유입과 공감 연기를 통한 공유, 댓글달기와 같은 의견제시 및 해시태그와 같은 응원의 표현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소통의 용이성과 접근성, 그리고 콘텐츠 측면의 완성도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소셜 미디어 내에서 댓글, 공유와 같은 적극적 소통 활동은 오프라인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SNS 내 오픈 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들이 절약활동을 중심으로 소셜 커뮤니티를 이루어 하루의 절약을 보고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소통을 통해 절약을 독려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친환경 행동 촉진을 위해 소셜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소통과 사회적 지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해 볼 수 있다. 한편 소셜 미디어 내에서 환경문제나 친환경행동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SNS콘텐츠, 게임, 출판, 영화 등을 기반으로 2~3차 콘텐츠 가공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소구방식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틀을 제공한 상황이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환경 위험으로써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 개인적 관련성 등의 인식은 정보추구 및 처리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

해룡·김원제, 2014).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공중의 위험 인식 및 행동 양상이 변화하고 소통의 장이 변화함에 따라,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행동 요인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상황이론에서 사용해 온 종속 변인인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실천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은 될 수 있으나, 항상 그렇다고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정원준, 2015; 정원준, 2022).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액티비즘을 매개변인으로 두고 탄소저감행동이라는 일상속의 실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커뮤니케이션 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탄소저감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인식과 제약인식에는 부분매개효과, 관여도 및 환경죄책감에는 완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액티비즘이 선행요인과 친환경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매개효과 크기가 .03 ~ .04 정도로 높지 않고, 부분 매개된 문제인식과 제약인식의 직접 효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온라인 액티비즘의 매개효과에 대한 성급한 해석을 하기보다는 추후 연구를 통해 매개 변인으로서의 영향력에 대한 반복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액티비즘은 다양한 소통채널과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에 참여하고 공유를 통해 구현되고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조직을 확장해주는 활동 자원으로 보았다(박혜령, 2022). 이러한 차원에서 온라인 액티비즘을 개념화 하기 위해 자발적 PR 커뮤니케이션 행동 변인을 도출하였고 사회참여적 성격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차원의 소통을 개념화하였다. 이에 온라인 액티비즘의 주요 요인을 정보 행동을 통한 타인과의 연결과 온라인 청원 및 투표 등과 관련한 지지표현 행동으로 규정하였다(강귀영·윤영민, 2021). 하지만 실제 온라인 액티비즘의 두 가지 차원은 응답자들에게 하나의 차원으로 인식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선행연구를 통해 다 차원으로 구분되었던 다수의 온라인상의 소통행동이 응답자들에게는 포괄적으로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온라인 액티비즘의 개념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이슈나 공공이슈 등에 대해 실제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의 자발적인 소통과 액티비즘의 운동적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심층적으로 조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

한 한계점은 온라인 액티비즘 개념의 체계화나 새로운 개념의 내용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하는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탄소저감행동에 관련한 온라인 액티비즘의 핵심적인 역할이 확인되었고 추후 온라인 액티비즘을 활성화하는 메시지 조건들이나 촉진요인들을 탐색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디지털 매체 이용자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액티비즘을 살펴보고 이러한 온라인 액티비즘의 파급력이나 영향력을 다양한 차원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공공이슈와 이슈의 특성, 그리고 공공이슈에 대한 소통과정에서 수용자들이 보여주는 소통행동, 소통참여에 따른 만족, 연대의식 형성, 커뮤니티 빌딩 등에 미치는 역할을 살펴보고 행동적 차원에서 온라인 액티비즘이 공공이슈에 대한 여론형성, 혹은 지지집단 형성, 더 나아가 공공정책 수용 및 지지 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귀영·윤영민 (2019). SNS를 통한 공중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행동 의도에 미치는 위험 감정의 역할. *한국광고홍보학보*, 21(1), 103~146.
- 강귀영·윤영민 (2021).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자발적 공공PR 커뮤니케이션 동기와 행동에 대한 연구: PR의 사회이양모델의 공공부문 적용. *홍보학연구*, 25(3), 43~91.
- 강만옥·구윤모·이미숙·정재현·전용식·조영상·배순영·강희찬·김종호·신상철·명수정 (2015). 연구보고서 2015-01: 친환경적 행동의 불편비용과 정책적 시사점. *기본연구보고서*, 2015, 1~144.
- 고재경·이우평 (2016). 기후변화 적응 행동 촉진 요인 연구. *환경정책*, 24(2), 109~136.
- 곽연경·전도현 (2021). 배달 음식 소비자의 환경의식과 에코 죄책감이 친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코 죄책감 조절효과. *외식경영연구*, 24(6), 133~157.
- 김미경 (2019). 뉴스신뢰도, 뉴스관여도와 확장편향이 소셜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치는 영향: 가짜뉴스와 팩트뉴스 수용자 비교.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52), 5~48.
- 김미경·장안리 (2022a). MZ세대의 플라스틱 저감 실천 유도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소셜 미디어와 캠페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134, 88~131.
- 김미경·장안리 (2022b). MZ세대의 환경 인식과 행동 및 소셜 미디어 역할 이해를 위한 탐색적 연구: 심층 인터뷰를 이용하여. *광고PR실학연구*, 15(3), 37~66.
- 김상애·김현정 (2018). 소셜미디어의 소통 경험이 다문화 사회구성원과의 갈등해결을 위한 공익캠페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통학보*, 17(1), 65~112.
- 김서용·김선희 (2016). 기후변화 의식과 대응행동 결정요인 분석. *행정논총*, 54(1), 179~206.
- 김수진·김영욱·백강희·박종민·유영석·이지수·최승범 (2019). 한국인의 기후변화 위험인식 연구: 문화적 편향을 중심으로. *한국PR학회 학술대회*, 2019(05), 241~254.
- 김영욱·이하나·김혜인·문현지 (2018). 미세먼지 대응 행동 촉진을 위한 메시지 구성 전략 탐색. *한국언론정보학보*, 92, 7~44.
- 김영욱·이현승·장유진·이혜진 (2016). 미세먼지 위험을 둘러싼 공중 근접 분석: 공중 세분화에 따른 위험 인식 및 관련 행동에 대한 차이점 도출. *홍보학연구*, 20(3), 201~235.
- 김정남·박노일·김수진 (2014). 공중 상황이론의 수정과 진화: 문제해결 상황이론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8(1), 330~366.
- 김주환·한미정 (2021). 지각된 위험과 지각된 효능감이 친환경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기된 죄책감을 통한 EPPM의 확장 가능성. *홍보학연구*, 25(1), 50~89.

- 김현정·윤영민 (2020). 분노, 실망감, 온라인 집합적 효능감이 기업의 갑질에 대한 온라인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STOPS 모델의 적용. *한국광고홍보학보*, 22(1), 35~83.
- 김희경 (2019). 콘텐츠 액티비즘-행동하는 콘텐츠. *인문콘텐츠*, (53), 35~49.
- 박이레·Song, C.·유나리 (2021). 기후 변화 위험 인식은 실제 대응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정책 지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6(1), 75~102.
- 박이레·김서용 (2020). 위험사회 대응과 신거버넌스 탐색: 미세먼지 대응행동 결정에서 위험소통 요인의 역할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1), 107~138.
- 박혜령 (2022).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액티비즘*.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혜영 (2021). 기후변화 예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지식 변인을 추가한 계획된 행동 이론 확장 모델 적용. *광고PR실학연구*, 14(4), 65~9.
- 송해룡·김원제 (2012). 원전주변 지역주민의 위험지각이 위험태도와 위험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238~248.
- 송해룡·김원제 (2014). 공중의 환경위험이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행동 연구: 지구온난화 쟁점(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3, 273~309.
- 신경아 (2013).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 동기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 안지수·노기영 (2020). 미세먼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 추구의 관계: 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 중심. *한국방송학보*, 34(3), 111~136.
- 오수빈·윤순진 (2022). 기후위기 위험 인식과 대응 행동 의도 간 감정적 반응의 매개효과. *환경정책*, 30(4), 53~97.
- 윤순진 (2009).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사회 갈등 예방과 완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모색. *국정관리연구*, 4(2), 125~160.
- 이소영·황유선·황주선·배영·한규섭 (2012). *소셜네트워크와 정치변동*. 파주: 도서출판 한울, pp. 115~145.
- 이준희·차희원 (2022). 정서적 이슈와 디지털 액티비즘 연구: 이슈 관여와 유발 경로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33(4), 47~88.
- 이현승·김영욱 (2022). 공중유형에 따른 미세먼지 위험 대응 행동의도 연구: 충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중 상황 이론의 확장 적용. *한국언론학보*, 66(3), 183~230.
- 임연수·이기영·이진균 (2021). 유튜브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 다뤄지는가?: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한 공공커뮤니케이션 방향 모색. *광고PR실학연구*, 14(3), 155~184.
- 임인재·김영옥 (2019). 기후변화 보도 유형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연구: 감정의 인지적 평가 이론 중심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96, 37~72.
- 장우영 (2006). 사이버공간의 이념과 정치: 한국 사이버 공론장의 구조 변동. *한국과 국제정치*, 22(4), 221~254.
- 장택원 (2012). *(세상에서 가장 쉬운)사회조사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원준 (2022). 위험정보 프로세싱(Processing) 다양화에 의한 코로나 예방 실천 행동 연구: 문제해결상황이론을 확장하여. *한국광고홍보학보*, 24(3), 69~103.
- 정현주·유영석 (2020). 퍼블릭 인게이지먼트의 효과를 고려한 기후변화 소통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소통학보*, 19(4), 149~192.
- 조소영 (2022). *온라인 행동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최미연·이형석 (2021). SNS 공공캠페인 참여의도 향상을 위한 연구: 시민참여 중심의 온라인 액티비즘을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4), 90~119.
- 최창호·유연우 (2017). 탐색적요인분석과 확인적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103~111.
- 최홍림·최준혁 (2022). 미세먼지 저감 행동 연구: 문제해결 상황이론을 응용하여. *광고PR실학연구*, 15(2), 230~258.
- 탄소중립정책포털 (2020). <https://www.gihoo.or.kr/menu.es?mid=a30101020000>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1).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19>
- 함승경·김혜정·김영옥 (2020). 해석수준과 대응수준이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거리의 매개효과와 미래/즉각적 결과고려의 조절효과 중심. *한국언론학보*, 64(4), 400~435.
- 환경부 (2021). *탄소중립생활실천안내서: 가정편*.
- Ágoston, C., Urban, R., Nagy, B., Csaba, B., Kóvry, Z., Kovacs, K., Varga, A., Dull, A., Monus, F., & Shaw, C. A. (2022).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the ecological crisis: Three new questionnaires to assess eco-anxiety, eco-guilt, and ecological grief. *Climate Risk Management*, 37, 100441.

- Bennett, W. L., & Segerberg, A. (2012). The logic of connective ac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5(5), 739~768.
- Bord, R. J., O'Connor, R. E., & Fisher, A. (2000). In what sense does the public need to understand global climate chang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9(3), 205.
- Brubaker, J. (2005). *The role of the Internet in agenda setting: A synthesized uses and gratifications and agenda setting model*. Kent State University.
- Chon, M. G., & Park, H. (2020). Social media activism in the digital age: Testing an integrative model of activism on contentious issu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7(1), 72~97.
- Elgaaied, L. (2012). Exploring the role of anticipated guilt on pro-environmental behavior—a suggested typology of residents in France based on their recycling pattern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9(5), 369~377.
- Grunig, J. E. (1978). Defining publics in public relations: The case of a suburban hospital. *Journalism Quarterly*, 55(1), 109~124.
- Grunig, J. E. (1997). A situational theory of publics: Conceptual history, recent challenges and new research. *Public Relations Research: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3, 48.
- Grunig, J. E., & Hunt, T. (1984). *Managing public relations*. CBS College Publishing.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oward, P. N., & Hussain, M. M. (2013). *Democracy's fourth wave?: Digital media and the Arab Spring*. Oxford University Press.
- Jiang, H., Kim, J. N., Liu, B., & Luo, Y. (2019). The impact of perceptual and situational factors on environmental communication: A study of citizen engagement in China. *Environmental Communication*, 13(5), 582~602.
- Kim, J. N., & Grunig, J. E. (2011). Problem solving and communicative action: A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Journal of Communication*, 61(1), 120~149.
- Kline, P. (1986). *A handbook of test construction Introduction to psychometric design London Methuen*, 1486.

- Lim, J. S., Greenwood, C. A., & Jiang, H. (2016). The situational public engagement model in a municipal watershed protection program: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sharing, and the use of organizational and social media. *Journal of Public Affairs, 16*(3), 231~244.
- Logie, J., & Gurak, L. J. (2003). Internet protests: From text to web: Online activism in theory and practice. In *Cyberactivism: Online activism in theory and practice* (pp. 25~46). Routledge.
- Mallett, R. K. (2012). Eco-guilt motivates eco-friendly behavior. *Ecopsychology, 4*(3), 223~231.
- Meraz, S. (2009). Is there an elite hold? Traditional media to social media agenda setting influence in blog network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3), 682~707.
- Moore, M. M., & Yang, J. Z. (2019). Using eco-guilt to motivate environmental behavior change. *Environmental Communication, 14*(4), 522~536.
- Nunnally, J.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Rheingold, H. (2007).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Basic Books.
- Schmader, T., & Lickel, B. (2006). The approach and avoidance function of guilt and shame emotions: Comparing reactions to self-caused and other-caused wrongdoing. *Motivation and Emotion, 30*, 42~55.
- Schneider, C. R., Zaval, L., Weber, E. U., & Markowitz, E. M. (2017). The influence of anticipated pride and guilt on pro-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PLOS ONE, 12*(11).
- Shin, K. A., & Han, M. (2015). The role of negative emotions on motivation and communicative action: Testing the validity of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6*(1), 76~93.
- Slovic, P., Finucane, M. L., Peters, E., & MacGregor, D. G. (2007). The affect heuristic.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177*(3), 1333~1352.

- Slovic, P., Finucane, M. L., Peters, E., & MacGregor, D. G. (2013). Risk as analysis and risk as feelings: Some thoughts about affect, reason, risk and rationality. In *The feeling of risk* (pp. 21~36). Routledge.
- Stanley, S. K., Hogg, T. L., Leviston, Z., & Walker, I. (2021). From anger to action: Differential impacts of eco-anxiety, eco-depression, and eco-anger on climate action and wellbeing. *The Journal of Climate Change and Health*, 1, 100003.
- Tangney, J. P., Miller, R. S., Flicker, L., & Barlow, D. H. (1996). Are shame, guilt, and embarrassment distinct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256.
- Tao, W., Li, J. Y., Lee, Y., & He, M. (2022). Individual and collective coping with racial discrimination: What drives social media activism among Asian American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New Media & Society*.
- Tilly, C., & Wood, L. J. (2015). *Social movements, 1768-2012*. New York: Routledge.
- Westbrook, R. A., & Black, W. C. (2002). A motivation-based shopper typology. *Retailing: Critical Concepts. The Environments for Retailing*, 2, 82.
- World Economic Forum. (2022). *Global risks report 2022*. Retrieved from <https://www.weforum.org/reports/global-risks-report-2022/>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WMO). (2023). *United in science 2023*. Retrieved from <https://public-old.wmo.int/en/resources/meteoworld/united-science-2023>

논문투고일: 2023년 11월 30일

논문심사일: 2024년 01월 14일

게재확정일: 2024년 01월 25일

Abstract

Exploring a Mediating Role of Online Activism Associated with Pro-environmental Behaviors^{*} Examining Associations among Cognitive, Affective Factors about Global Warming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s

Jeong-Eun Kim^{}**

Doctoral Student, Dep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Bo-Hyeong Park^{*}**

Master, Dep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Mijeong Han^{**}**

Professor, Dep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with 367 adults to explore a mediating role of online activism in relations among cognitive factors, an affective factor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s. The cognitive factors included problem recognition, constraint recognition and involvement and the affective factor referred to environmental guilty about the issue of global warming.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s in this study mainly dealt with carbon reduction behaviors. The results analyzed the associations among predictor variables and the dependent. Cognitive factors of problem recognition(+) and constraint recognition(-)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carbon reduction behaviors. Online activism also showe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carbon reduction behaviors. When analyzing the mediating role of online activism, online activism showed a partial mediation effect among cognitive factors of problem recognition and constraint recognition and carbon reduction behaviors. However, involvement and environmental guilty were influential on carbon reduction behaviors only when online activism was mediated among those variables. This indicated that for pro-environmental behaviors to effectively respond to problems related to global warming,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Hanyang University (HY-2022-1622)

** First Author, kimje114@naver.com

*** Co-Author, via0012@hanyang.ac.kr

**** Corresponding Author, mjhan909@hanyang.ac.kr

it is essential to promote online communication behaviors among people who are exposed to solutions such as carbon reduction behaviors. Further endeavors are needed to encourage people's participation in online communications about global warming and its various solutions of pro-environmental behaviors.

KEY WORDS Global warming • Problem recognition • Constraint recognition • Involvement, eco-guilt • Online activism • Carbon reduction behaviors